

- 

후렴



가정예배

2025-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고령

담임 목사 박말로



예배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신앙고백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다 같이

기도 ----- 말 은 이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가정의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가정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46:1-5 ----- 다 같이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 씀 -----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 ----- 다 같이

찬 송 -----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 다 같이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복(시146:1-5)

우리는 연약하여 눈으로 보아야만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면 보여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보장된 직장, 보장된 노후, 아무도 막막한 미래나 불안정한 노후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채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섰지만 언제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습니다. 또한 다윗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장되지 않은 내일 때문에 불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형통케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 가족과 주변 이방민족을 극심한 흉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역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 순간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매일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으며,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츠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장되지 않은 내일은 시험 아니라 오히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바로 앞의 것만 보여주십니다. 40년 먹을 만나를 한꺼번에 내려 주시는 게 아니라 그날 먹을 만나를 그날 아침에 내려주셨습니다. 지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을 따라 한걸음씩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가 아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잠시 머물게도 하시고 나아가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도움을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도움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인생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5절)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복을 받았습니다. 보장된 그 무엇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하여 하나님을 도움삼아 승리하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